

1회차 · 80분

AI가 처음이라면

알파고 이야기부터, 오늘 당장 써보는 것까지

여는 말

- 청중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AI 써보신 분?” 손 든 비율로 이후 속도를 조절합니다.
- 이 시간의 약속: 용어를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끝나면 직접 한 번 써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 6개 주제, 각 10분 안팎. 중간에 실습 한 번 있습니다.

오늘 다룰 것

여섯 가지

01

알파고에서 지금까지

02

AI가 무엇인가

03

무엇이 좋아지나

04

처음 써보기

05

원하는 답을 얻는 법

06

조심할 것

차례

- 앞의 3개는 “왜/무엇”, 뒤의 3개는 “어떻게”입니다.
- 4번에서 실제로 손을 움직입니다. 노트북을 열어두시라고 미리 안내하세요.

01

알파고에서 지금까지

그 사건 이후 6년간 아무것도 안 바뀐 이유

1부 도입

- 여기서 청중의 기억을 깨우는 게 목적입니다. 대부분 2016년을 기억합니다.
-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2016년 3월, 서울

이세돌 9단 vs 알파고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이 이 대국을 봤습니다.

-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 기계가 사람을 이기는지가 궁금해서였습니다

4 : 1

알파고 승

다섯 판 중 네 판

발표자 노트 · 04

2016년 3월

- 당시 상식: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기계가 이기려면 한참 남았다.
- 뉴스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나” 기사가 쏟아졌던 것을 언급하면 공감이 큼니다.

4국 · 78수

신의 한 수

알파고가 사람에게 진 유일한 공식 기록입니다.

- 판 한가운데를 파고드는 수였습니다
- 알파고는 79수에서 실수했고, 87수가 되어서야 밀리는 걸 알아챘습니다

1 / 10,000

사람이 그 수를 둘 확률

알파고의 계산

78수

- 여기서 복선을 심으세요 — “기계도 자기가 지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 뒤에서 환각(그렇듯하게 틀림)을 설명할 때 이 장면을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 6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이 알파고 때문에 바뀐 게 있습니까?

핵심 질문

- 여기서 3초쯤 멈추세요. 청중이 스스로 “없었다”고 답하게 하는 게 이 장의 목적입니다.
- 실제로 손을 들어보게 해도 좋습니다. 거의 안 듭니다.
- 이 질문의 답이 오늘 강의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알파고는 바둑만 두는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바둑판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메일을 써달라

못 함

회의록을 정리해달라

못 함

계약서를 검토해달라

못 함

바둑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알파고는 “대단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바뀌었나

- 핵심 문장을 그대로 말하세요 — “나와 상관이 없었다.”
- 뉴스는 뜨거웠지만 사무실은 그대로였다는 대비가 잘 먹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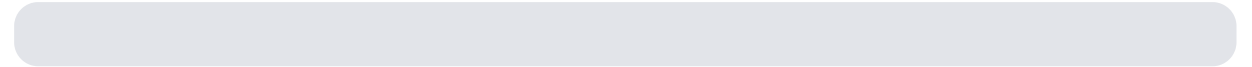
2022년 11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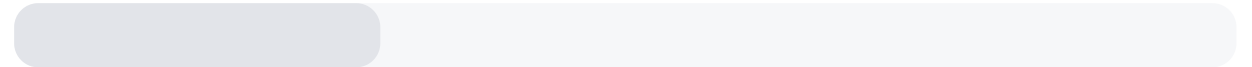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약 2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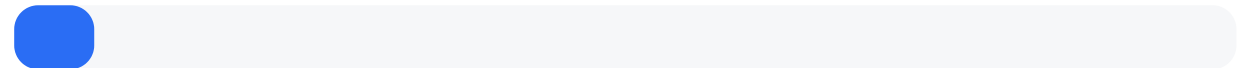
틱톡

약 9개월



ChatGPT

약 2개월



2022년 11월

- 숫자를 읽어주지 말고 막대 길이를 가리키세요. 시각적 대비가 메시지입니다.
- “이 분야를 오래 본 사람들도 이런 속도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알파고

잘하는 것

바둑

쓸 수 있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

필요한 준비

바둑을 알아야 함

나와의 관계

구경거리

지금의 AI

잘하는 것

✓ 말과 글

쓸 수 있는 사람

✓ 글을 다루는 모든 사람

필요한 준비

✓ 한국어로 말할 줄 알면 됨

나와의 관계

✓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도구

왜 이번엔 달랐나

- 청중에게 물어보세요 — “사무실에서 하는 일 중 말과 글이 아닌 게 얼마나 되나요?”
- 거의 전부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게 이 표의 결론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

“알파고가 이겼으니 AI는 사람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AI를 잘못 쓰게 됩니다.

알파고

다루는 문제
규칙이 명확 (바둑)

정답
있음

틀릴 때
계산 착오

지금의 AI

다루는 문제
✓ 규칙이 없음 (좋은 글이란?)

정답
✓ 없음

틀릴 때
✓ 그럴듯하게 지어냄

지금 AI는 천재가 아니라 **아주 부지런한 조수**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 마지막 줄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 “부지런한 조수 — 빠르고 지치지 않지만, 확인 없이 말하면 안 되는 조수입니다.”
- 여기서 5부(조심할 것)를 예고해두면 뒤가 매끄럽습니다.

2024년

같은 해에 노벨상 두 개가 AI로 갔습니다

하나였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개는 다릅니다.

2024

노벨 물리학상

존 홉필드 · 제프리 힌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의 기초를 세운 발견과 발명

2024

노벨 화학상

데미스 허사비스 · 존 점퍼 · 데이비드 베이커

딥마인드 뮌은 AlphaFold를 이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AI가 연구를 거드는 도구를 넘어 **과학적 발견이 일어나는 자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신호입니다.

2024년 노벨상

-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같은 해에 AI 관련 연구로 갔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 수상자 이름을 다 읽지 마세요. 두 카드의 “무엇으로” 줄만 짚으면 충분합니다.
- 앞 장의 “정답: 없음”과 이어집니다 — 그게 약점이 아니라 다루는 범위라는 것.

이 사례가 말하는 것

정답이 정해진 게임에서, 정답이 열려 있는 문제로

AlphaFold가 예측한 단백질 구조는 전 세계 연구자에게 공개됐습니다

신약과 효소 연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알파고는 규칙과 승패가 있는 게임을 풀었습니다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이 회의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는 채점표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AI를, **조직의 일상 업무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HyperTeams Connect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착지

- 여기서 처음으로 제품 이름을 꺼냅니다. 홍보하지 말고 한 문장만 읽고 넘어가세요.
-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일과 회의록을 정리하는 일은 규모가 다르지만, 바탕에 있는 기술은 같은 계열입니다.”
- 질문이 나오면 뒤 회차(왜 전환인가)로 미루세요. 여기서 제품 설명을 시작하면 흐름이 끊깁니다.

02

AI가 무엇인가

검색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2부 도입

-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냐”입니다. 정의를 짧게 주고 예시로 넘어갑니다.
- 정의를 길게 하지 마세요. 이 구간에서 지루해지면 나머지 세 부를 잃습니다.
- 질문이 나오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받으세요 — 뒤로 갈수록 안 물어봅니다.

한 줄로 하면

사람이 쓴 글을 아주 많이 읽고, 다음에 올 말을 잘 맞히게 된 프로그램

의식이 있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

-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못 박으세요. 기대치를 낮추는 게 이후 이해를 돕습니다.
- 다만 이것을 극단적으로 잘하면 글을 쓰고 요약하는 것처럼 보인다 — 로 연결합니다.

같은 상황, 두 도구

엑셀에서 사번으로 부서를 찾고 싶습니다

검색

엑셀 vlookup 사용법

- VLOOKUP 완벽 정리 — 블로그
 - 기초부터 실전까지 — 유튜브
 - 오류 해결 7가지 — 카페
- 읽고, 고르고, 내 표에 맞게 바꾸기

AI

A열에 사번, B열에 이름, C열에 부서가 있어요. 사번을 넣으면 부서가 나오게 하려면?

=VLOOKUP(A2, 직원명부!A:C, 3, FALSE)

→ 내 상황에 맞춘 답

검색 vs AI

- 왼쪽부터 짚으세요. “검색은 여기까지 해줍니다. 나머지는 내 일입니다.”
- 오른쪽은 질문이 길다는 점을 강조 — 검색어처럼 줄이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이 화면을 띄워놓고 시연하면 가장 좋습니다.

검색은 찾아주고, AI는 만들어줍니다

도서관 색인과 사서의 차이입니다. 색인은 위치를 알려주고, 사서는 내 질문에 맞게 정리해 답합니다.

핵심 대비

- 이 한 문장만 가져가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 사서 비유를 이어서 — “사서도 가끔 잘못 기억합니다.” 5부 복선입니다.
- 검색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도 짚으세요(오늘 환율, 최신 뉴스).

03

무엇이 좋아지나

하루 업무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

3부 도입

- 추상적인 얘기를 끝내고 구체적인 업무로 내려갑니다.
- 여기서 참석자의 실제 업무를 하나 받아 예시로 쓰면 몰입이 확 올라갑니다.
- “내 일에는 안 맞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반박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적어두세요.

공통점

사람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두 지점

AI가 잘하는 곳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 빈 화면 앞에서 첫 줄을 쓰는 것
- 긴 것을 끝까지 읽는 것

1을 10으로 다듬는 일과 맞는지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이
낫습니다.

긴 글을 짧게

12장 계약서에서 볼 곳만

첫 줄 쓰기

사과 메일 초안

흩어진 것 정리

회의 메모 → 표

외국어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메일

막막할 때

아이디어 10가지

무엇이 좋아지나

- 오른쪽 다섯 개 중 청중 업무에 가까운 것 하나를 골라 물어보세요.
- 좋은 사용법 = AI가 초안, 사람이 판단. 이 구조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시 · 12장짜리 계약서

시간을 줄인 게 아니라, 시간을 쓸 곳을 정해준 것

대금 지급 (제7조) — 검수 후 60일. 일반적인 30일보다 길니다.

계약 해지 (제12조) — 상대방만 30일 전 통보로 해지 가능. 우리 쪽 조건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제15조) — 배상 상한이 없습니다.

12장을 다 읽는 대신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고 그 부분만 확인합니다.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계약서 예시

- 법무 담당자가 있는 자리라면 “이게 검토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를 먼저 말하세요.
- AI가 짚은 세 조항이 실제로 문제인지는 사람이 봐야 한다 — 반드시 덧붙입니다.

04

처음 써보기

지금 노트북을 열어주세요

4부 · 실습

- 여기서 진도를 멈추고 실제로 하게 합니다. 10분 잡으세요.
- “틀려도 아무것도 안 망가집니다”를 먼저 말해 부담을 없앱니다.

따라 하기

첫 대화 세 단계

1

말 걸어보기

내 직무를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일
5가지를 물어봅니다

2

되물어보기

“세 번째 것을 자세히” — 앞 대화를 기억합니다

3

일 시켜보기

메일 초안, 긴 글 요약, 표 정리 중 하나

사람에게 말하듯 쓰세요. 검색어처럼 줄이지 않습니다.

실습 진행

- 2단계가 핵심입니다 — 검색과 달리 앞 대화를 기억한다는 걸 체감시키세요.
- 돌아다니면서 화면을 봐주면 좋습니다. 대부분 질문을 너무 짧게 씁니다.
- 잘 된 사례 하나를 화면에 띄워 공유하면 분위기가 올라갑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너무 길다

“절반 길이로 줄여주세요”

너무 딱딱하다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

내 상황과 안 맞다

“우리는 (상황)이라 그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고쳐 말하기

- “처음부터 완벽한 요청을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하면서 좁혀가는 게 더 빠릅니다.”
- 회의록 정리 예시(세 번 주고받아 원하는 형태가 됨)를 말로 들려주면 좋습니다.

요령

같은 일을 시켜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AI는 내가 알려준 것만 압니다. 짧게 물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보고서인지, 누구에게, 얼마나 길게

상황 알려주기

“작년에 이걸 해봤는데 안 됐다”가 특히 효과적

예시 하나 주기

설명 열 줄보다 정확합니다

원하는 답을 얻는 법

- “프롬프트 잘 쓰는 법” 같은 건 지금 안 배워도 된다고 명확히 말해주세요.
- 이 세 가지가 나머지 전부보다 효과가 큼니다.

05

조심할 것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알면 더 편하게 씁니다

발표자 노트 · 24

5부 도입

- 겁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하세요.
- “자동차 사각지대를 알아야 안심하고 운전합니다.”

한계 1

그럴듯하게 지어냅니다

틀린 답이 맞는 답과 똑같이 자신 있게 나옵니다. 말투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 존재하지 않는 책 제목이 저자·연도까지 붙어 나옵니다
- “모르겠다”보다 답의 형태가 더 자연스러운 이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우리 회사 2023년 매출이 얼마였지?

답변

2023년 매출은 약 47억원입니다.

AI는 내 회사 매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나왔습니다.

환각

- 78수 장면을 다시 부르세요 — “알파고도 87수까지 자기가 지는 걸 몰랐습니다.”
- 가능하면 즉석에서 시연하세요. 없는 책을 물어보면 대개 만들어냅니다.
- “확실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줘”를 붙이면 빈도가 준다는 요령도 알려주세요.

안전한 사용과 위험한 사용

내가 준 내용을 가공하는 일은 안전하고, AI가 없는 정보를 채워야 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다시 하면 됨

그냥 씁니다

- 글 다듬기
- 요약 · 번역
- 아이디어 목록

돈 · 신뢰 · 법이 걸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숫자 · 날짜 · 통계
- 사람 이름 · 책 · 법 조항
- 대외 발송 문서

언제 확인하나

- 판단 기준은 한 문장 — “이게 틀렸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 회사 정보를 넣기 전에 회사 방침을 확인하라는 것도 여기서 함께 말합니다.
- “확인이 더 오래 걸리면 그 일에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도 꼭 덧붙이세요.

실습 · 20분

같은 일을 세 번 시켜 비교하기

똑같은 일을 세 번 시키면서 요령을 한 번에 하나씩만 엿습니다. 어느 것이 실제로 답을 바꾸는지 눈으로 봅니다.

1 맨몸으로

평소 검색하듯 던집니다. 대개 “그대로 보낼 수 없음”이 나옵니다

2 상황을 붙여서

받는 곳 · 사유 · 새 일정. 다섯 요령 중 이 하나가 절반을 합니다

3 형식까지

문장 수 · 첫 문장과 끝 문장 · 쓰지 말 표현

4 나란히 채점

고칠 곳 2군데 이하면 “쓸 만함”

실습 진행

- 아직 안 쓴 글로 하게 하세요. 이미 쓴 글로 하면 자기 글과 비슷한 답에 후한 점수를 줍니다.
- 2단계에서 크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시키는 게 이 실습의 전부입니다.
- 3단계에서 “쓰지 마”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보게 하세요 — 앞으로 무엇을 적을지 감이 잡힙니다.
- 셋 다 별로면 요청이 아니라 일감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짚어주세요.

정리

오늘 가져가실 것

- 1 검색은 찾아주고, AI는 만들어줍니다
- 2 사람에게 말하듯 쓰고, 상황을 알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고쳐 말합니다
- 3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판단합니다
- 4 틀렸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로 확인 여부를 정합니다

정리

- 네 문장을 소리 내어 읽게 해도 좋습니다.
- 질문 시간을 여기에 두세요. 다음 장은 마무리용입니다.

다음 회차

개인에서 조직으로

한 사람이 잘 쓰는 것과 회사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그 사이에서 멈춥니다.

가이드에서 이어 읽기 · </guide>

마무리

- 다음 회차 예고 — “왜 전환인가” 3장.
- 가이드 주소를 화면에 띄워두고 끝내세요. 실습 이어가기가 쉬워집니다.